

수 학 보 고 서

소 속	미디어휴먼라이프대학/ 디지털미디어학과	
파 견 국 가	미국	
파 견 대 학	Jacksonville State University	
파 견 기 간	시작	2025/1(년/월)
	종료	2025/5(년/월)

준 비 과 정	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까지 과정
	평소에 해외에서의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교환학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이미 기존에 토익을 봤었기 때문에 교환학생에 어렵지 않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. 영어 speaking에 대한 능력을 쌓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
	파견교 지원 과정
	파견교를 지원하기까지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 준비하는 것이 가장 오래걸렸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지원서는 자유 양식이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. 다만 면접 준비 과정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영어 면접이다 보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, 사전에 미리 질문과 답변을 연습했던 것이 효과를 봤습니다.
	파견국가 출국 준비 과정 (비자, 항공권, 준비물 등)
파 견 학 교	입학 허가서를 받은 후, 교환학생 J-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DS-160 작성, SEVIS 비용 납부, 대사관 인터뷰를 준비하였습니다. 인터뷰는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진행되었고, 예상 질문을 미리 연습하면서 비교적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. 항공권은 출국 약 1 개월 전에 예약하였으며 준비물은 학용품, 의류, 전자기기(노트북, 멀티 어댑터 등), 건강 관련 약품 등 실용적인 중심으로 챙겼습니다. 현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대부분 현지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필수품 위주로 준비하였습니다.
	공항 픽업 & 오리엔테이션
파 견 학 교	학교에서 메일로 셔틀을 신청하라는 메일이 옵니다. 해당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셔틀 신청서가 있는데, 같이 도착하는 사람들의 도착 날짜와 시간을 고려해 셔틀

	<p>시간을 최종적으로 공지해 주십시오. 공항은 '애틀란타 공항'으로 픽업을 오시고, 홈페이지 설명서에 캐리어 및 가방에 대한 사이즈 규정이 있는데 실제로 확인 안 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왓츠앱으로 기사님의 전화번호를 받기 때문에, 도착하면 기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됩니다. 주의할 점은 셔틀 신청 날짜에 기 한이 있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면 따로 셔틀을 타고 가야 합니다. 공항에서 학교까 지 차로 2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셔틀을 추천합니다.</p> <p>오리엔테이션의 경우, 저는 두가지를 들었습니다. International house에 거주하는 경우, international house 오리엔테이션과, 학교 내에서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들어 야 합니다. 학교 내의 오리엔테이션은 한화로 14만원 정도 냈습니다. 오리엔테이션 에서 전공별로 교실에 들어가 수강신청에 관한 질의응답을 받습니다. 이때 듣고 싶었던 수업을 요청하거나, 수강하고 싶었지만 수강신청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이 곳에서 수강신청을 통해 수업을 등록할 수 있으며, 수업 추천 등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International house 오리엔테이션은 해당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을 위한 것입 니다. International house 기숙사 자체가 프로그램이 매우 많기 때문에 추천합니 다. 매주 목요일 4시부터 5시에 country presentation에 참여해야 하며, 봉사활동 도 필수로 요구됩니다. 캠퍼스 내에서 10시간, 캠퍼스 밖에서 5시간을 채워야 하 며,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. 이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은 이곳에서 주 최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.</p>
	<p>수업 & 학교 활동</p> <p>수업은 1학년 수업부터 고학년 수업까지 다양하게 들었습니다. 고학년 수업을 듣 는 것보다 1,2학년 수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학교 활동은 international houe에서 진행하는 축제 및 행사들을 참여했습니다. 저는 동아리로 ISO를 했고, international house와 연계되어 있어서 재미있게 참여했습니다.</p> <p>기본적으로 international house에서 크게 진행하는 행사는 1월의 smore night, 3 월의 taster's fair, 4월 spring bonding trip, vibe party, banquet awards가 있습니 다. 문화가 다르다보니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행사들이 많아 정말 가치있다고 생각했습니다.</p>
	<p>기숙사 및 학교 내 편의 시설</p> <p>-기숙사: 저는 international house에 살았습니다. 이곳은 필수적으로 국제학생들 은 미국인 한 명과 룸메이트가 됩니다. 모두 40명이 거주하며, 부엌은 공동으로 이용합니다.</p> <p>기숙사 내 세탁기와 건조기는 무료입니다.</p>

	<p>Dining hall 과 kitchen, lobby는 공용 공간입니다. 그리고 basement에는 게임, 공부, 영화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</p> <p>-학식: jax cash 혹은 meal plan을 구매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Meal plan은 카페테리아에서 먹는 방식이고 jax cash는 카페테리아 및 교내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cash입니다. (모두 student ID에 충전됩니다) 카페테리아 맛은 괜찮습니다. 그리고 교내 안에 있는 식당은 스타벅스, 칩플레 (햄버거 가게), freshians, 그리고 아시안 식당까지 있습니다.</p> <p>-학교 교내 rec center (체육관) 무료입니다. 교내에서 PT를 진행할 수도 있고, 클라이밍, 수영, 필라테스 등의 다양한 활동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.</p> <p>-배달 앱: 'door dash' 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grocery 배달 및 음식 배달 주문이 가능합니다.</p>
주 변 환 경	거주지 주변 지역 정보
	<p>시골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학교에 할 것이 없습니다. 그나마 차로 나가면 oxford 라는 도시에서 영화를 보고, mall 등의 할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.</p> <p>-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아, 친구들에게 pick up 요청을 해야합니다. International house에서는 흔한 일이기때 망설임 없이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.</p> <p>-약국: walgreens 학교에서 멀지 않으며 근처에 있습니다. 차로 5분 거리입니다.</p> <p>-월마트: 차로 18분-2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.</p> <p>-아시안 마트: 차로 40분 정도 거리에 있으며, Immanuel Oriental Market입니다. 한인교회 분들이고 모두들 친절하십니다.</p>
	파견 대학 소재지 지역 정보
	<p>주변에 필요한 상점들은 있는 편이고, 놀거리는 많이 없습니다.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는 잘 갖추어져 있어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. 남부 지역 특성상, 사람들이 매우 친절했으며 인종이 다양하다보니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우호적인 편입니다. 공기와 자연 경관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.</p>
비 용	등록금 (해당 학생만)
	저는 명지대에 등록금을 냈기에, 해당하지 않았습니다.
	기숙사 비용 (해당 학생만, 학기당)

	<p>기숙사 비용은 건물마다 다르지만, 최대 500만원이었습니다. 하지만 international house의 경우 기숙사비가 무료입니다. 따라서 따로 지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.</p>
	<p>추가 비용 (교재비, 보험 등)</p> <p>교재비가 추가로 들어가고, 듣는 전공 및 수업에 따라 tuition을 따로 냅니다. 저는 따로 tuition fee가 없었습니다. 보험은 기숙사 보험과 유학생 보험을 두 개 다 들었습니다.</p>
	<p>생활비</p> <p>저는 식비가 가장 많이 들었고, 그 외에는 크게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. 전반적으로 큰 도시들에 비해 생활비 부담이 적었습니다.</p>
	<p>한달 평균 지출 비용</p> <p>주변에 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아끼려면 충분히 아낄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저는 외식비용이나 식비 및 학교 내 티셔츠 등을 구매하느라 한 달에 80-100만원 정도 사용하였습니다. 하지만, 각자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30만원-50만원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저는 meal plan을 구매하지 않았고, 외식을 많이 하러 다녔기 때문에 돈이 아마 더 들었습니다. 처음 미국에 가서 기숙사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는 비용을 제외하면 한국에 있을 때랑 비슷하게 돈을 썼습니다.</p>
	<p>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</p> <p>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Jacksonville State University 에서 한 학기 동안 생활하면서, 영어도 많이 늘었고, 문화적인 다양성에 대한 시각이 넓어졌습니다. 처음에는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살짝 힘들었지만, 모두 이해해주고 잘 도와주어서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.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좋은 추억들이 많이 쌓였고, 좋은 친구들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. 단순히 학업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해도 될 정도로 좋은 기억들을 많이 쌓아 추천하고 싶습니다. 6개월 더하고 싶었을 정도로 마지막에 친구들과 헤어질 때 너무 아쉬웠습니다. 혹시 교환학생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, imjy1128@naver.com 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.</p>
<p>사진 첨부 (최소 5장)</p>	
<div></div>	





